

“광주 미화원 새벽 일 위험...근무환경 개선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지적 1인당 청소거리 평균 웃돌아 ‘새벽 청소’ 근절 등 대책추구

광주에서 미화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새벽 일을 줄이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미화원 1인당 청소거리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노동강도가 높아 사고도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19일 “광주에서 새벽에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또 사망한 사건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 새벽 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면서 “미화원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사망 사고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적대동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모(59)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수거차)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수거차 운전자 김모(47)씨가 서씨가 차에 타고 있다고 잘못 알고 차를 후진하려다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5일 새벽에도 광주시 북구 운안고가 밑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이 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잦은 미화원 새벽 근무 도중 사망과 관련 ‘새벽근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화원이 청소를 해야 하는 거리가 긴 만큼, 새벽근무가 잦아 관련 사고도 많다는 것이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자료 기준, 환경부 적정거리는 미

화원 1인당 1.8km인데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이를 모두 초과했다. 광산구 5.80km, 서구 5.00km, 북구 4.49km, 동구 2.45km로 환경부 기준보다 많은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고 이번엔 사고가 난 남구의 경우도 3.69km에 달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새벽근무 폐지 ▲사업장 심리프로그램 마련 ▲청소 차량 운전시 유도차 배치 ▲안전교육 일상화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환경미화원 외부용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은 “광주 5개 구청의 미화원들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데 해가 뜨는 시간부터 일을 시작해도 충분히 거리가 깨끗해 질 것”이라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환경미화원 긴급대책회의’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광주시당도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북구의 사망사고 당시에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새벽노동을 폐지하고 공공업무를 민간에 외주 위탁하는 관리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시장과 각 구청장들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의당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환경미화 노동자 27명의 유가족들이 사망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상해를 입은 노동자가 766명에 달한다. 전국에 3만5000명이 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광주에만 1000명이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다른 시민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를 마쳐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상훈) 하울림 봉사단(단장 최무송 의원이)이 지난 17일 문흥동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단 소속 구의원 10여명은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문흥동 대주아파트 일대를 청소했다. <광주북구의회 제공>

6만명 다녀간 ‘광주김치축제’ 마무리

광주시는 19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계절별로 분산 개최된 김치축제 누적방문객은 6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호주, 중국 등 12개국 40여 명의 주한외교관 가족 초청 행사, 김치셰프 요리쇼, ‘천년의 김치’ 주재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1박2일 광주김치 체험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김치버무림 체험, 김치명품마켓, 김치응용요리 시식 및 판매부스 등에는 가족단위 방문객들 30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1억여 원의 현장판매 실적을 거뒀다.

또 전국 요리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김치경연대회’에서는 김효숙씨(담양군)가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황미선씨(경기도 양평), 문화체육부장관상은 윤경미(남구)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김치축제에 이어 열리는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 참가 신청도 10여 t 가량 이뤄졌다.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은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4년부터 개최된 김장대전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원·부재료를 활용해 간편하고 손쉽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행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5t이 사전예약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에너지·도시재생 숨은 규제 없애자”

광주서 김부겸 장관과 100분 토론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숨겨진 숨은 규제 다시 살아가는 광주경제’라는 주제로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3건), 생활 및 서민경제 규제개선 분야(2건),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3건)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주)이엘티 양희원 대표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100kW 이하)의 거래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두산건설(주) 신성장개발팀 과장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를, 주식회사 제이카 강오순 대표이사가 ‘차량용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허용’ 등을 제안했다.

또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관리소 황재현 과장이 ‘복지점용허가 대상 완화’에 따른 보행자 편의 제공’을,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한정은 대표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등)에 대한 통행 제한기간 규제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된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광주시 환경정책과 윤정식 자연환경담당이 ‘동광주IC 폐도부지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 광주 동구 도시재생과 양진철 도시활력담당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해제 기준 완화’를, 조규재 일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천의산업 대표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처 담당 등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정책 반영 등을 약속했다.

또 토론회 참석자들이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도시재생 등을 마련하고 도약을 꾀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가 광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규제혁신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한정은 대표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등)에 대한 통행 제한기간 규제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양동·말바우시장 안전점검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겨울철 안전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윤시장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자 화재에 취약한 시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자 민생현장 점검을 했다.

특히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와 이에 따른 수능연기 등으로 불안함이 커지고 있어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날 점검은 ▲의용소방대 순찰 ▲소방차량 전진 배치 ▲비상소화 장치 점검 ▲시장상인 화재예방 교육 ▲보이는 소화기 위치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또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점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실 담당 국장과 합동으로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을 차례로 돌며 점포상인들의 예로사

향을 들었다.

이어 ▲보이는 소화기 추가 배치 ▲비상소화장치 추가 설치 ▲시장 불법주차 계도활동 등을 지시하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양동시장 문상식 상인회장과 양동북계상가 손중호 상인회장, 말바우 시장 정종록 상인회장 등은 “광주시에서 화재 등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 감사하다”며 “앞으로 시장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19일에도 서부도매시장과 각화도매시장을 각각 방문해 김장물가를 점검하고 농산물 유통종사자들을 만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새울행정시스템’ 활성화 장관상

광주 북구가 ‘새울행정시스템 활성화’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7 새울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새울행정시스템은 각 시·군·구에서 농업·환경 등 23개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북구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활용, 공통기반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활동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광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정보화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대민서비스 처리와 행정보고를 전산으로 처리해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교육·토론회 등을 통해 시스템 이용활성화를 극대화했다.

또 새울행정시스템의 고사공고 채번(번호를 붙임) 방법, 개인정보 주의문구 개선 요청 반영, 장애지원 관련 원인분석 등 기능개선활동, 정부시스템과의 협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4년 광주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해 전산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